

職業能力開發研究
第9卷(1), 2006. 7, pp. 49~79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공무원 채용시험과 대학교육*

오 호 영**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 현행 공무원 공채제도가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채용제도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학생의 17.8%가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대생이 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결정요인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직이거나, 가족 중 공무원이 있을 경우 응시성향이 높아 가족배경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로 인하여 대학에서의 학점이 저하되는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민간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과거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의 현재임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시험 준비기간이 약 11개월 이상이었을 경우 현재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공무원 시험 준비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민간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지식 및 숙련형성에는 부정적이었다.

약 30만명에 육박하는 응시자 수를 감안할 때, 공무원 공채제도를 개편함에 있어 우수인력의 공직유치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및 민간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대학교육의 정상화, 민간고용과의 연계성 제고, 공직접근의 용이성 제고 등의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공무원시험, 대학교육, 인적자원개발, 지방대

투고일: 2006년 6월 29일, 심사일: 7월 13일, 심사완료일: 7월 21일

* 본 연구는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공무원 채용제도가 노동시장과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I. 연구배경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정부부문 역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국가경영의 주체로서 조직혁신을 이루기 위해 공직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의 변화와 혁신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정부부문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각국 정부가 치밀한 인적자원계획에 입각한 인재채용, 육성, 활용, 배치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태권(2004)은 정부부문이 본질적으로 노동집약적 조직(labor-intensive enterprise)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구성원인 공무원이 혁신역량을 기초로 생산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역대 우리 정부는 행정개혁의 주요 과제로서 인사제도의 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개편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매년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인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무원 신규채용방식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민간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 경력직 위주의 채용관행,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조기퇴직을 비롯한 고용불안정성의 증대 등은 공직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2000-2004)」의 추진으로 민관임금격차의 축소 내지는 공무원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오호영, 2004; 조우현·임찬영, 2000).

현행 공무원 공채제도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는데 따른 인적자원배분의 왜곡과 낭비이다. 국가직 5급, 7급, 9급 공무원시험 출원자를 모두 합한 수치는 2000년 176,229명에서 2004년 245,170명으로 무려 68,941명이나 증가하였다. 다양한 직업세계에 진출하여 경력을 형성하고 숙련을 쌓아야 할 청년인력의 상당수가 상당기간 암기 위주의 공무원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 할 수 있다.¹⁾

1) 한국교육개발원이 2004년 4월 전국 363개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자 53만여명을 대상

둘째, 대학진학률이 80%를 상회하는 고학력화 추세와 합격자(9급 행정직 공채기준)의 99%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대학교육과의 연계성이 미약한 채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공채시험은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의 비정상화와 왜곡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전문대 및 대학교 재학생 중 상당수가 전공을 불문하고 대거 공무원시험 준비에 나섬으로써 대학교육의 비정상화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학업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수험생활에만 치중하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공무원 시험 위주로 대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의 본질을 해치고 순수학문을 지향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공무원 공채제도가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공무원 공채제도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대학 재학생의 공무원 시험 응시증가로 국가인적자원개발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는 모범고용주(model employer)로서 공직내부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채용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공무원 채용시험 중 신규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개경쟁채용²⁾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장은 연구배경 및 목적에 해당된다. II 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위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공무원의 비중 및 연간 신규충원 현황,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추이, 학력별 특성 등을 살펴본다. III 장에서는 공무원 채용제도가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재학생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대학재학생의 공무원시험 응시현황, 공무원시험 응시 결정요인분석, 공무원 시험이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IV 장에서는 공무원시험 준비가 인적자원개발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취업자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임금함수 분석을 시도한다. V 장은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이다.

으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를 준비중인 사람은 10.7%인 28,456명으로 나타났다.

2) 중앙인사위원회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2년 국가공무원 일반직 신규채용의 경우 전체 채용 인원 4,071명중 공채인원이 3,880명으로 약 95%가 공개경쟁채용제도에 의해 선발되고 있다.

II. 공무원 노동시장 현황

1.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추이

공무원채용과 관련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규모와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공무원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채용제도가 교육과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이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경제 내의 최대 단일고용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즉, 공무원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936천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수의 7.4%, 상용근로자 수의 12.3%에 달한다.

<표 1> 전체 공무원의 2004년 신규충원실적 및 2005년 신규충원계획

(단위: 명)

구 분		2004년도 실적	2005년도 계획		
		실적(A)	계(B)	공채	특채
계		45,390	34,885	28,249	6,636
국가직 공무원	소 계	26,486	23,065	18,965	4,100
	일 반 직	4,036	3,906	3,168	738
	특 정 직	20,392	17,019	15,790	1,229
	기 능 직	1,666	1,972	7	1,965
	기타	392	218	-	218
지방직 공무원	소 계	18,904	11,820	9,284	2,536
	일 반 직	13,579	7,960	7,262	698
	특 정 직	1,646	1,317	1,118	199
	기 능 직	2,566	2,302	904	1,398
	기타	1,113	241	-	241

자료: 중앙인사위원회(2004). 『공무원 인사개혁백서』 636쪽에서 인용.

〈표 1〉에서 공무원 신규충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45,390명을 신규채용하였고, 2005년에는 34,885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으로 있다. 이는 2003년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생 562,231명의 6.2%~8.1%에 달하는 수치이다. 〈표 1〉의 신규채용현황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005년 신규충원계획에서 국가공무원 신규채용 중 외무·경찰·소방·군인·교육 등 특정직공무원³⁾이 17,0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직공무원은 3,906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5급, 7급, 9급을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채용시험에서는 외무공무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반직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몰리는 약 30만명에 육박하는 응시자수를 감안할 때 외무·경찰·소방·군인·교육 등을 모두 합할 경우 공무원 시험 준비생 규모는 실로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공공데이터베이스」자료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수 추이는 〈표 2〉와 같다. 여기에서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수는 1980년부터 1995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직 5급, 7급, 9급을 모두 합산한 2004년 응시자수는 245,170명으로 당해년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을 모두 합친 수의 9.0%에 달한다.

1980년의 대학정원확대조치와 1990년대 추진된 준칙주의에 의한 대학설립기준 완화 등은 대학정원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으며, 같은 기간 공무원 시험 출원자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급, 7급, 9급을 모두 합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은 1980년 35.1:1에서 2004년 96.1:1로 거의 3배가량 높아진 것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이것은 급속한 고학력화의 결과로 민간 노동시장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당수 대졸자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결과로 풀이된다.

〈표 2〉에서 관찰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5급 공채시험의 경우 응시자수는 1980년 17,904명에서, 2004년 19,664명으로 1.1배 증가하는데 그쳐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7급 응시자수는 같은 기간 중 22,701명에서 63,895명으로 2.8배 증가하였으며, 9급 응시자수는 동기간중 42,093명에서 161,611명으로 3.8배 증가하여 낮은 직급일수록 응시자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특정직 공무원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초·중·고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인데 2004년 기준으로 교원정원은 318,436명에 달하며, 이는 당해년도 전체 공무원정원의 34%에 달하는 수치이다.

둘째, 직급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5급은 대체로 분석기간중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7급, 9급은 크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5급의 경우에는 1980년 59.3:1에서 2004년 69.0:1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7급은 동기간중 39.2:1 → 136.5:1로, 9급은 28.6:1 → 89.9:1로 높아졌다. 이러한 직급별 경쟁률 변화는 시험 준비 부담, 합격가능성, 근로조건에 있어서 민간부문과의 상대적 격차 등에 관한 직급별 격차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노동시장이 민간부문과 공무원으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할 때 공무원시험 경쟁률의 상승은 공무원에 유리한 근로 조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공무원 5급보다는 7급과 9급에 있어서 보다 현저할 가능성이 있다.

<표 2>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의 직급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경쟁률 추이

(단위: 명, 배)

년 도	계			5급			7급			9급		
	응시자	합격자	경쟁률	응시자	합격자	경쟁률	응시자	합격자	경쟁률	응시자	합격자	경쟁률
1980	82,698	2,354	35.1	17,904	302	59.3	22,701	579	39.2	42,093	1,473	28.6
1985	87,699	1,675	52.4	18,544	165	112.4	29,799	360	82.8	39,356	1,150	34.2
1990	105,043	4,936	21.3	17,135	238	72.0	25,412	488	52.1	62,496	4,210	14.8
1995	118,725	2,166	54.8	20,364	257	79.2	36,019	504	71.5	62,342	1,405	44.4
2000	176,229	3,777	46.7	17,537	280	62.6	53,191	658	80.8	105,501	2,839	37.2
2004	245,170	2,551	96.1	19,664	285	69.0	63,895	468	136.5	161,611	1,798	89.9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공공데이터베이스」.

2.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의 학력별 특성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자에 대한 통계를 확보할 수 없어 합격자 현황통계를 토대로 응시자의 구성변화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표 3>에서 5급 고시 학력별 합격자수 분포 추이를 보면 대학재학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대졸의 합격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5급 고시 경쟁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중 대학재학생의 비중이 줄고, 대졸자 비중이 늘었다는 사실은 고시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시험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고시공부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시준비를 시작하는 시기가 대학 초년생으로 앞당겨지고 있는 일반적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 현행 5급고시 채용제도는 수험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의 직급별·학력별 합격자수 분포추이

(단위: 명, %)

구분	연도	계	대학원	대졸	대학재학	전문대	고졸이하
5 급 고 시	1980	302 (100)	68 (22.5)	78 (25.8)	154 (51.0)	2 (0.7)	0 (0.0)
	1985	165 (100)	75 (45.5)	46 (27.9)	43 (26.1)	0 (0.0)	1 (0.6)
	1990	238 (100)	103 (43.3)	100 (42.0)	35 (14.7)	0 (0.0)	0 (0.0)
	1995	257 (100)	74 (28.8)	120 (46.7)	63 (24.5)	0 (0.0)	0 (0.0)
	2000	280 (100)	76 (27.1)	128 (45.7)	76 (27.1)	0 (0.0)	0 (0.0)
	2003	298 (100)	73 (24.5)	140 (47.0)	84 (28.2)	1 (0.3)	0 (0.0)
7 급 행 정 직	1980	395 (100)	2 (0.5)	41 (10.4)	63 (15.9)	45 (11.4)	244 (61.8)
	1985	300 (100)	10 (3.3)	147 (49.0)	79 (26.3)	19 (6.3)	45 (15.0)
	1990	250 (100)	10 (4.0)	160 (64.0)	53 (21.2)	7 (2.8)	20 (8.0)
	1995	114 (100)	20 (17.5)	74 (64.9)	14 (12.3)	2 (1.8)	4 (3.5)
	2000	200 (100)	9 (4.5)	159 (79.5)	30 (15.0)	- (0.0)	2 (1.0)
	2003	323 (100)	11 (3.4)	266 (82.4)	41 (12.7)	4 (1.2)	2 (0.6)
9 급 행 정 직	1980	1,473 (100)	0 (0.0)	1 (0.1)	100 (6.8)	34 (2.3)	1,338 (90.8)
	1985	1,030 (100)	0 (0.6)	99 (9.6)	232 (22.5)	115 (11.2)	584 (56.7)
	1990	1,941 (100)	3 (0.2)	511 (26.3)	352 (18.1)	138 (7.1)	937 (48.3)
	1995	238 (100)	0 (0.0)	155 (65.1)	46 (19.3)	26 (10.9)	11 (4.6)
	2000	632 (100)	4 (0.6)	468 (74.1)	107 (16.9)	38 (6.0)	15 (2.4)
	2003	902 (100)	13 (1.4)	638 (70.7)	200 (22.2)	42 (4.7)	9 (1.0)

주: 1) 전문대는 전문대 졸업, 재학, 퇴학을, 대학재학은 대학 재학, 퇴학을, 대학원은 대학원 재학이상을 각각 의미.

2) 7급, 9급의 경우에는 전체 직렬의 학력별 구성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직만을 대상으로 계산.

자료: 상동

다음으로 7급 행정직 합격자의 학력별 분포추이를 살펴보면, 고졸이하의 비중이 급감한 반면 대졸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7급 행정직 합격자중 고졸비중은 1980년 61.8%에서 2003년 0.6%로 미미해진 반면, 대졸의 비중은 1980년 10.4%에서 2003년 82.4%로 크게 높아졌다. 이것은 고학력화 추세와 더불어 7급 공채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치열한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험준비가 요구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9급 행정직 합격자의 학력별 분포추이를 살펴보면, 7급과 마찬가지로 고졸이하의 비중이 급감하였고, 대학재학 및 대학졸업이상 학력자의 구성이 크게 증가하였

다. 과거 공무원 9급은 고졸 학력수준에 적합한 직급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있었지만, 고학력화가 가속화되고 민간부문의 취업여건이 악화되면서 대학재학 이상 고학력자의 9급 응시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였다.

Ⅲ. 대학교육에 대한 영향 실증분석

1. 자료

공무원 시험이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재학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의 설계, 표본추출, 조사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재학생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 중 지역(서울/경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과 대학형태(국립대/사립대) 등을 감안하여 10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결과해석시 조사대상 10개 대학은 전국 대학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각 대학별로 60명씩 임의추출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다.

<표 4> 대학교 재학생 모집단 및 표본수

(단위: 천명, 명, %)

전공계열	모집단 (천명)			표본수 (명)			추출률 (%)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법학 등 ¹⁾	11,868	7,361	4,507	66	41	25	0.00056	0.00056	0.00055
경상	19,560	12,957	6,603	108	72	37	0.00055	0.00056	0.00056
어문	11,243	3,777	7,466	62	21	41	0.00055	0.00056	0.00055
문과기타	7,450	3,479	3,971	41	19	22	0.00055	0.00055	0.00055
공학	32,413	27,503	4,910	179	152	27	0.00055	0.00055	0.00056
자연	20,311	11,330	8,981	112	63	50	0.00055	0.00056	0.00056
사범	6,721	2,817	3,904	37	16	22	0.00055	0.00057	0.00056
계	109,566	69,224	40,342	606	383	223	0.00055	0.00055	0.00056

주: 1) 법학·행정·정치·외교

자료: 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대학 내 조사대상자는 6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휴학생 60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추출은 대학/전공계열/성을 고려하여 각 층별로 4~5명씩 조사하는 할당추출(quota sampling) 방식에 의해 조사하였다. 전공계열은 공무원 시험과 전공간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7개(법학·행정·정치·외교, 경상, 어문, 문과기타전공, 공학, 자연, 사범계열)로 나누며,⁴⁾ 대학별·전공계열별 성비는 모집단의 비율에 따라 표본을 할당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된 모든 결과표는 2005년 4월 1일 현재 대학별·전공계열별 3학년 이상 재학생수 가중치가 반영되었음을 밝혀둔다. 조사방법은 전국 10개 대학 현장에 전문조사원이 직접 나가 설문대상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5년 9월 20일~10월 13일이었다.

2. 대학재학생의 공무원 응시현황

가. 4관

〈표 5〉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재학생(휴학생 포함) 규모는 17.8%이며 이중 실제 공무원시험 응시비율은 11.6%로서 실제 응시비율이 6.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16.4%, 여자의 20.5%가 현재 공무원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여자의 응시성향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수학상태별로는 재학생의 16.6%, 휴학생의 44.4%가 현재 공무원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휴학생의 응시비율이 재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휴학이 공무원시험 공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재학생 실태조사가 학교에서 무작위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고시원, 학원 등에서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휴학생들이 제외됨으로써 휴학생이 과소표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록 실태조사 결과 휴학생이 재학생에 비해 미미한 비중이라 할지라도 실제 휴학생 비율은 〈표 5〉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 공무원 시험공부 의향에 대해서는 '응시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남자(16.3%)보다

4) 공무원 시험준비 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체능과 의학·보건계열 전공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여자(24.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안룡식(1981)의 연구와 비교할 때 여자의 경우 공무원 시험공부를 '안 하겠다',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응답이 95.4%였던 점을 감안하면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표 5> 대학재학생 공무원 시험공부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현재 공무원 시험공부 여부		과거 공무원 시험공부 여부		미래 공무원 시험공부 의향		공무원시험 응시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계	606	108 (17.8)	498 (82.2)	45 (9.1)	452 (90.9)	96 (19.3)	401 (80.7)	70 (11.6)	536 (88.4)	
성별	남자	63 (16.4)	320 (83.6)	27 (8.4)	293 (91.6)	52 (16.3)	268 (83.8)	44 (11.5)	339 (88.5)	
	여자	46 (20.5)	178 (79.5)	18 (10.2)	159 (89.8)	44 (24.9)	133 (75.1)	26 (11.7)	197 (88.3)	
학력	현재 수험 상태	재학	96 (16.6)	483 (83.4)	46 (9.5)	437 (90.5)	94 (19.5)	389 (80.5)	64 (11.1)	515 (88.9)
		휴학	12 (44.4)	15 (55.6)	0 (0.0)	15 (100)	2 (13.3)	13 (86.7)	6 (22.2)	21 (77.8)
	학년	3	48 (15.9)	253 (84.1)	23 (9.1)	230 (90.9)	63 (24.9)	190 (75.1)	25 (8.3)	277 (91.7)
		4	60 (19.7)	244 (80.3)	23 (9.4)	222 (90.6)	33 (13.5)	212 (86.5)	45 (14.8)	260 (85.2)

주: 음영부분은 χ^2 검증결과 $p<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상이함을 의미.

<표 6> 대학재학생의 공무원 시험 준비현황

(단위: 명, %)

구분	학생수	
시험종류별	교원	26 (24.1)
	경찰직	5 (4.3)
	소방직	3 (2.9)
	사법시험	8 (7.0)
	일반직	67 (61.7)
	소계	108 (100)
일반직 지역별	국가공무원	43 (65.0)
	지방공무원	23 (35.0)
	소계	67 (100)
일반직 직급별	5급	11 (17.1)
	7급	15 (22.1)
	9급	41 (60.7)
	소계	67 (100)

〈표 6〉에는 대학재학생의 공무원시험 공부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준비하는 공무원시험 종류별로는 일반공무원(국가·지방 5,7,9급 등)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교원임용시험, 사법시험, 경찰, 소방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공무원 시험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되는데, 국가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직급별로는 9급, 7급, 5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전공별 현황

〈표 7〉에 따르면 대학재학생의 전공별 공무원시험 공부 현황은 현재 여부와 미래 의향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과거 공무원시험 공부 경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대학 1, 2학년의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전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3, 4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험준비에 나서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7> 대학재학생의 전공별 공무원 시험공부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현재 공무원시험 공부 여부*			과거 공무원시험 공부 여부			미래 공무원시험 공부 의향*		
		소계	예	아니오	소계	예	아니오	소계	예	아니오
계	606 (100)	606 (100)	108 (17.8)	498 (82.2)	498 (100)	46 (9.2)	452 (90.8)	498 (100)	96 (19.3)	402 (80.7)
법학 등 ²⁾	66 (10.8)	66 (100)	24 (36.4)	42 (63.6)	42 (100)	6 (14.3)	36 (85.7)	41 (100)	15 (36.6)	26 (63.4)
경상	108 (17.9)	108 (100)	15 (13.9)	93 (86.1)	93 (100)	12 (12.9)	81 (87.1)	94 (100)	9 (9.6)	85 (90.4)
어문	62 (10.3)	62 (100)	7 (11.3)	55 (88.7)	55 (100)	3 (5.5)	52 (94.5)	55 (100)	11 (20.0)	44 (80.0)
문과기타전공	41 (6.8)	41 (100)	6 (14.6)	35 (85.4)	35 (100)	4 (11.4)	31 (88.6)	35 (100)	7 (20.0)	28 (80.0)
공학	179 (29.6)	180 (100)	15 (8.3)	165 (91.7)	165 (100)	12 (7.3)	153 (92.7)	164 (100)	26 (15.9)	138 (84.1)
자연 계열	112 (18.5)	113 (100)	21 (18.6)	92 (81.4)	92 (100)	9 (9.8)	83 (90.2)	92 (100)	20 (21.7)	72 (78.3)
사범	37 (6.1)	37 (100)	21 (56.8)	16 (43.2)	16 (100)	0 (0)	16 (100)	17 (100)	8 (47.1)	9 (52.9)

주: 1) *은 χ^2 검증결과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상이함을 의미.

2) 법학, 행정, 정치, 외교학과의 4개학과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전공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범계열(56.8%), 법학등(36.4%), 자연계열(18.6%), 문과기타전공(14.6%) 등의 순으로 높으며, 공학계열(8.3%)이 가장 낮았다. 미래 공무원 시험공부 의향을 전공별로 살펴보면 사범계열(47.1%), 법학등(36.6%), 자연계열(21.7%), 어문계열(20%), 문과기타전공(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학계열의 경우 현재 공무원시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으나 장차 공무원시험 공부를 하겠다는 의향(15.9%)이 비교적 높았다.

다. 지역별 현황

<표 8>에서는 대학 재학생의 공무원시험 준비 현황을 출신 고교와 대학 소재지별로 분석해보았다. 우선 출신 고교 소재지별 '현재 공무원시험 공부여부'를 살펴보면 지방 고교 졸업생(20.9%)이 수도권 고교 졸업생(10.5%)보다 공무원시험 준비비율이 높았다. 또한, 대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지방대학 재학생(22.5%)이 수도권 소재 대학생(11.0%)보다 공무원시험 준비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과거 공무원시험 공부 경험이나 미래 공부 의향에 있어서는 대학재학생의 출신고교 및 대학 소재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8> 대학재학생의 지역별 공무원시험 공부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전체	현재 공무원시험 공부 여부			과거 공무원시험 공부 여부			미래 공무원시험 공부 의향			
		소계	예	아니오	소계	예	아니오	소계	예	아니오	
계	606 (100)	606 (100)	108 (17.8)	498 (82.2)	498 (100)	46 (9.2)	452 (90.8)	497 (100)	96 (19.3)	401 (80.7)	
출신 고교 소재	수도권	181 (29.9)	181 (100)	19 (10.5)	162 (89.5)	162 (100)	13 (8.0)	149 (92.0)	161 (100)	29 (18.0)	132 (82.0)
	지방	425 (70.1)	425 (100)	89 (20.9)	336 (79.1)	336 (100)	33 (9.8)	303 (90.2)	336 (100)	67 (19.9)	269 (80.1)
대학 소재	수도권	247 (40.8)	246 (100)	27 (11.0)	219 (89.0)	219 (100)	15 (6.8)	204 (93.2)	219 (100)	40 (18.3)	179 (81.7)
	지방	359 (59.2)	360 (100)	81 (22.5)	279 (77.5)	279 (100)	31 (11.1)	248 (88.9)	278 (100)	56 (20.1)	222 (79.9)

주: 음영 부분은 χ^2 검증결과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상이함을 의미.

3. 공무원시험 응시 결정요인 분석

여기에서는 공무원 공채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학재학생의 공무원시험 응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통해 대학재학생의 공무원시험 응시현황을 살펴보았으나 여러요인을 동시에 통제하면서 개별요인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짓분석(logit analysis)을 시도한다.

분석을 통해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 전공, 지역 등이 공무원시험 응시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적 배경-가구소득, 부모의 학력 및 직업-이 공무원시험 응시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특히 가족적 배경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공무원 시험준비에 상당한 비용과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되고, 수험생중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는 공무원시험 응시기회에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시험준비에 따른 각종 부담이 저소득층의 공무원시험 응시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구소득, 부모의 학력 및 직업이 자녀의 공무원시험 응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공무원시험이 모든 계층에게 공정한 접근성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한 몰입정도는 개인별로 편차가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시험준비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나 노력의 편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시험 원서출원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실 9급의 경우 공무원 시험에 원서를 출원하고도 응시하지 않는 비율이 30%~40%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출원여부만을 가지고 공무원시험 준비의 강도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시험준비 여부만으로는 시험준비의 강도가 매우 낮은 수험생까지 포함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원여부를 분석의 기준으로 채택한다. 공무원시험 출원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여 개인적 속성, 학습노력, 학교특성과 가족배경이 공무원 시험 출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조사된 재학생 606명중에 설명변수에 미관찰 자료가 있는 52명을 제외한 554명이 분석대상이다.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추정식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식 1)과 같다.

$$\log\left(\frac{\pi_{ij}}{1-\pi_{ij}}\right) = \beta_0 + \beta_{ij}X_{ij} + \gamma_{ij}S_{ij} + \delta_{ij}F_{ij} + \epsilon_{ij}, \quad j=0, 1 \quad (\text{식 1})$$

(식 1)에서 j 는 범주로서 공무원 시험 출원경험 있음($\pi = 1$), 없음($\pi = 0$)을 각각 의미하며, i 는 설명변수의 수이다. X 는 공무원 시험 출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 S 는 학교관련 변수, 그리고 F 는 가족적 배경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대표한다.

공무원 시험 출원여부가 크게 개인적 속성, 교육배경, 가족배경의 3가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설명변수를 구성하였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 연령이, 교육배경에는 학년, 학점(100점 환산점수), 대학소재지, 전공, 전공만족도, 전공전망이, 그리고 가족적 배경에는 가구소득, 아버지 학력, 아버지 직업, 가족 및 친지중 공무원 포함여부, 부모와의 동거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포함하여 모형을 추정하게 되면 공무원 시험출원에 대한 각 요인들의 개별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표 9>에는 분석에 포함된 변수에 대한 설명과 출원경험 유무별 요약통계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표 10>에는 이들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이항로짓모형을 추정한 결과인데, 추정계수와 표준오차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가족적 배경을 나타내는 가구소득, 아버지 학력, 아버지 직업, 가족 혹은 친지중 공무원 존재여부의 변수를 조합하여 총 5개의 모형을 추정한 결과 모형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변수의 조합에 따라 값이 크게 변화하지 않아 모형의 견고성(robustness)을 확인하여 주었다.

추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터미의 추정계수는 유의하지 않아 공무원 시험 응시에 있어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대학소재지별로는 예상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학생에 비해 지방대생의 응시성향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청년층 취업난이 특히 지방대생에게 집중되고 있고, 민간기업 취업시 예상되는 지방대생에 대한 유무형의 차별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전공별 응시성향은 법학/행정/정치/외교학과에 비해 경상계열, 어문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이 유의하게 낮은 반면, 사범 및 문과 기타 전공은 높은 특성을 보였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공무원시험 응시성향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향후 취업전망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음의 값을 보여 전망이 좋을수록 응시성향을 낮추는 효과가 예상되었다.

셋째, 가족배경 변수를 살펴보면, 우선 가구소득을 연속변수로 처리하여 추정한 <모형 1>에서 가구소득의 추정계수는 음의 부호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공무원시험 응시성향은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오즈비(odds ratio)는 0.995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1만원 늘어날때 공무원 시험에 출원할 확률은 0.5% 낮아졌다. 그리고 가구소득을 소득범주에 따라 3개의 구간(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나누어 추정한 <모형 2>를 살펴보면, 중산층에 대한 저소득층의 오즈비는 2.279인 반면에 고소득층은 0.472로서 고소득 가구 재학생일수록 공무원시험 응시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소득계층에 따른 공무원시험 응시기회의 형평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중 공무원시험 합격가능성(probability)에 대한 소득계층의 영향은 자료제약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아버지의 학력은 자녀의 공무원시험 응시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직업은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준전문직일 경우 기타의 직업에 비해 자녀의 공무원 응시성향은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가족 중에 공무원이 존재할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자녀의 공무원시험 응시성향을 유의하게 높였다. 이로부터 대학생의 공무원시험 응시에는 아버지 직업, 가족중 공무원의 영향력이 지대함을 확인하였다.

<표 2> 공무원시험 출원경험관련 변수설명 및 요약통계

변수설명	응시경험 있음		응시경험 없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공무원시험 출원경험더미(있음=1, 없음=0)	0.12	(0.00)	0.88	(0.00)
성 더미(남자=1, 여자=0)	0.63	(0.49)	0.63	(0.48)
연령	23.66	(1.91)	23.47	(1.81)
전공 더미(법학행정정치외교=1, 기타=0) 비교기준	0.21	(0.41)	0.10	(0.29)
" (경상계열=1, 기타=0)	0.17	(0.38)	0.18	(0.38)
" (어문계열=1, 기타=0)	0.06	(0.24)	0.11	(0.31)
" (문과기타=1, 기타=0)	0.09	(0.28)	0.07	(0.25)
" (공학계열=1, 기타=0)	0.26	(0.44)	0.30	(0.46)
" (자연계열=1, 기타=0)	0.18	(0.38)	0.19	(0.39)
" (사범계열=1, 기타=0)	0.04	(0.20)	0.06	(0.25)
대학 소재지 더미(지방=1, 수도권=0)	0.79	(0.41)	0.57	(0.50)
학년 더미(3학년=1 기타=0) 비교기준	0.34	(0.48)	0.50	(0.50)
" (4학년=1, 기타=0)	0.57	(0.50)	0.46	(0.50)
" (휴학중=1, 기타=0)	0.08	(0.28)	0.04	(0.20)
학점 (100점 환산점수)	82.86	(9.74)	82.82	(8.50)
전공만족도 더미(만족=1, 불만족=0)	0.52	(0.50)	0.67	(0.47)
전공전망 더미(좋음=1, 좋지 않음=0)	0.46	(0.50)	0.58	(0.49)
가구소득(만원)	261.19	(112.82)	303.57	(122.43)
가구소득 더미(중산층=1, 기타=0) 비교기준	0.48	(0.50)	0.51	(0.50)
" (저소득층=1, 기타=0)	0.37	(0.49)	0.23	(0.42)
" (고소득층=1, 기타=0)	0.15	(0.36)	0.26	(0.44)
아버지 학력 더미(대졸=1, 기타=0) 비교기준	0.32	(0.47)	0.31	(0.46)
" (중졸이하=1, 기타=0)	0.16	(0.37)	0.14	(0.35)
" (고졸=1, 기타=0)	0.45	(0.50)	0.43	(0.50)
" (전문대졸=1, 기타=0)	0.02	(0.14)	0.03	(0.18)
" (대학원이상=1, 기타=0)	0.03	(0.18)	0.08	(0.27)
아버지 직업 더미(사무직=1, 기타=0) 비교기준	0.25	(0.44)	0.24	(0.43)
" (관리/전문/준전문=1, 기타=0)	0.29	(0.46)	0.21	(0.41)
" (판매직=1, 기타=0)	0.20	(0.40)	0.23	(0.42)
" (숙련기능직=1, 기타=0)	0.06	(0.24)	0.06	(0.24)
" (조작및단순노무직=1, 기타=0)	0.06	(0.24)	0.04	(0.21)
" (무직,사망=1, 기타=0)	0.14	(0.35)	0.21	(0.41)
가족친지 공무원유무더미(없음=1, 있음=0) 비교기준	0.43	(0.50)	0.50	(0.50)
" (가족=1, 기타=0)	0.35	(0.48)	0.20	(0.40)
" (친지=1, 기타=0)	0.22	(0.42)	0.31	(0.46)
부모와의 동거 여부 더미(동거=1, 비동거=0)	0.72	(0.45)	0.64	(0.48)

주: 더미변수 중 전공, 학년, 가구소득, 아버지 학력, 아버지 직업, 가족친지 공무원 유무 등의 평균은 구성비를 의미.

<표 10> 공무원시험 출원경험 이항로짓 추정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수항	1.0741	-0.0415	0.7518	0.9627	0.5076
성더미(남자=1, 여자=0)	0.1782	0.1895	0.1790	0.1436	0.1974
연령(세)	-0.0825	-0.0930	-0.0494	-0.0899	-0.0757
전공더미(경상계열=1)	-1.0316 **	-0.9915 **	-0.9758 **	-1.0387 **	-0.9800 **
" (어문계열=1, 기타=0)	-1.5133 **	-1.4729 **	-1.5726 **	-1.4375 **	-1.3603 **
" (문과기타=1, 기타=0)	-0.6773	-0.6540	-0.6877	-0.7083	-0.5310
" (공학계열=1, 기타=0)	-1.1729 **	-1.2168 **	-1.2029 ***	-1.0210 **	-1.1104 **
" (자연계열=1, 기타=0)	-1.0860 **	-1.0603 **	-1.0707 **	-1.0131 **	-0.9432 **
" (사범계열=1, 기타=0)	-1.1448	-1.0882	-1.2112 *	-1.1379	-1.141
대학소재더미(지방=1, 수도권=0)	1.0708 ***	1.0330 ***	1.1551 ***	1.0055 ***	1.0780 **
학년더미(4학년=1, 기타=0)	0.9468 **	0.9603 ***	0.8442 **	0.9394 **	0.7975 **
" (휴학중=1, 기타=0)	1.1756 *	1.2721 **	1.1562 *	1.2507 **	1.0409 *
100점 환산 학점	0.0008	-0.0006	-0.0006	0.0008	0.0015
전공만족더미(만족=1)	-0.5621 *	-0.6077 *	-0.4878	-0.5538 *	-0.4518
전공전망더미(좋은=1, 나쁨=0)	-0.1881	-0.1792	-0.2825	-0.1911	-0.1448
가구소득(만원)	-0.0049 ***	-	-0.0042 ***	-0.0048 ***	-0.0041 ***
가구소득더미(저=1, 기타=0)	-	0.8239 **	-	-	-
" (고=1, 기타=0)	-	-0.7498 *	-	-	-
아버지학력더미(중졸이하=1)	-0.5619	-0.5321	-0.6582	-	-0.4747
" (고졸=1)	-0.3817	-0.3670	-0.4684	-	-0.4251
" (전문대졸=1)	-0.1527	-0.2432	-0.5302	-	-0.1870
" (대학원이상=1)	-0.9637	-1.0496	-0.7993	-	-0.7465
아버지직업더미(관리전문전문=1)	0.7959 *	0.8123 *	0.5657	0.6543	-
" (판매직=1)	-0.4301	-0.3971	-0.6573	-0.5201	-
" (숙련기능직=1)	-0.6766	-0.6750	-0.8252	-0.8811	-
" (조작단순노무=1)	0.0897	0.1294	-0.1845	-0.1167	-
" (무직, 사망=1)	-0.0881	-0.0879	-0.3238	-0.1225	-
가족중공무원더미(있음=1)	0.9895 ***	0.9868 ***	-	1.0040 ***	0.9020 ***
친지중공무원더미(있음=1)	-0.2396	-0.2300	-	-0.2034	-0.2882
부모와의 동거더미(동거=1)	0.1356	0.1524	0.0026	0.1843	0.3006
Log Likeli	407.24	407.24	407.24	407.24	409.13
N	554	554	554	554	559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의미.

4. 공무원시험이 대학학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무원시험 출원여부에 따른 대학학점에 대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생산함수(education production function)를 추정하였다. 교육생산함수는 Coleman(1966)에서 비롯된 교육투자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접근방법의 하나로서 교육학에서는 학업성취도 모형으로도 부른다. 교육생산함수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의 관점에서 교육성과(성적)를 투자의 함수로 파악한다. 여기에서는 교수-학생비율, 장학금 등의 교육투자와 더불어 학생 개인의 노력이 교육생산의 중요한 설명변수로 취급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재학생 606명중에서 설명변수에 미관찰이 있는 52개의 데이터를 제외한 554명을 분석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추정한다.

$$Y_i = \alpha + \beta_i X_i + \gamma_i S_i + \delta_i F_i + \zeta_i E_i + \varepsilon_i \quad (\text{식 2})$$

(식 2)에서 종속변수 Y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난학기 혹은 최종학기의 학점을 나타내고, X는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속성, S는 교육배경, F는 가족배경, E는 공무원시험 출원 경험을 각각 의미한다. 개인속성에는 성, 연령이, 교육배경에는 전공, 대학소재지, 학년, 전공만족도, 학교만족도, 향후 전공전망, 수업참여도, 과제물제출정도, 전공공부시간 등이, 가족배경에는 가구소득 아버지 학력, 아버지 직업, 가족친지 공무원 여부, 부모와의 동거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추정결과 전공공부시간,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제외한 가족배경 변수 등은 유의하지 않아, 지면관계상 결과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변수설명 및 요약통계는 <표 11>, 그리고 위의 회귀 모형식에 따라 추정된 추정계수와 표준오차는 <표 12>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추정결과를 정리한 <표 12>에 따르면 가구소득에 대하여 연속형 변수와 3개의 이산형 변수(고소득계층, 중산계층, 저소득계층)를 조합하여 2개의 모형을 추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결정계수는 0.1수준으로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 학교 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역, 학년, 수업참여도, 과제물제출정도, 부모와의 동거여부 등이었다. 모형추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던 공무원시험 출원경험이 학교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논문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재 공무원시험 준비여부를 기준으로 추정하더라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얻었으며, 전공별로도 공무원시험 응시는 학교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공무원시험 응시경험 더미변수의 추정계수

부호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음으로 나와 학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리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다음으로 지역더미는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유의하였는데, 이는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유치난과 졸업생의 취업난을 상쇄하기 위하여 '학점 관대화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추측되었다. 학년 더미변수를 보면 기준집단인 3학년에 비하여 4학년은 2.8점, 휴학생은 3.3점 성적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수업참여도가 높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3.7점, 과제물제출을 열심히 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3.2점 성적이 각각 높았다.

<표 11> 교육생산함수 변수설명 및 요약통계

변수설명	응시경험 유		응시경험 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점 (100점 환산점수)	82.86	(9.74)	82.82	(8.50)
성 더미(남자=1, 여자=0)	0.63	(0.49)	0.63	(0.48)
연령	23.66	(1.91)	23.47	(1.81)
전공 더미(법학행정정치외교=1, 기타=0), 비교기준	0.21	(0.41)	0.10	(0.29)
" (경상계열=1, 기타=0)	0.17	(0.38)	0.18	(0.38)
" (어문계열=1, 기타=0)	0.06	(0.24)	0.11	(0.31)
" (문과기타=1, 기타=0)	0.09	(0.28)	0.07	(0.25)
" (공학계열=1, 기타=0)	0.26	(0.44)	0.30	(0.46)
" (자연계열=1, 기타=0)	0.18	(0.38)	0.19	(0.39)
" (사범계열=1, 기타=0)	0.04	(0.20)	0.06	(0.25)
대학소재지 더미(수도권=1, 기타=0) 비교기준	0.21	(0.41)	0.43	(0.50)
" (충청도=1, 기타=0)	0.16	(0.37)	0.20	(0.40)
" (전라도=1, 기타=0)	0.37	(0.49)	0.18	(0.38)
" (경상도=1, 기타=0)	0.25	(0.44)	0.19	(0.39)
학년 더미(3학년=1, 기타=0) 비교기준	0.34	(0.48)	0.50	(0.50)
" (4학년=1, 기타=0)	0.57	(0.50)	0.46	(0.50)
" (휴학중=1, 기타=0)	0.08	(0.28)	0.04	(0.20)
전공 만족도 더미(만족=1, 불만족=0)	0.52	(0.50)	0.67	(0.47)
전공 향후전망 더미(좋음=1, 좋지않음=0)	0.46	(0.50)	0.58	(0.49)
전공수업참여도 더미(적극적임=1, 소극적임=0)	0.64	(0.48)	0.68	(0.47)
전공수업과제물 더미(적극적임=1, 소극적임=0)	0.68	(0.47)	0.73	(0.44)
학교 만족도 더미(만족=1, 불만족=0)	0.51	(0.50)	0.62	(0.49)
부모와의 동거 여부 더미(동거=1, 비동거=0)	0.72	(0.45)	0.64	(0.48)
공무원시험 출원경험 더미 (있음=1, 없음=0)	0.61	(0.49)	0.16	(0.37)

<표 12> 교육생산함수 추정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상수항	79.0008 *** (6.6944)	80.2916 *** (6.5928)
성년미(남자=1, 여자=0)	-0.7712 (1.0470)	-0.7995 (1.0495)
연령	-0.1489 (0.2937)	-0.1540 (0.2948)
전공년미(경상계열=1, 기타=0)	-0.9054 (1.4465)	-0.8834 (1.4506)
" (어문계열=1, 기타=0)	0.6694 (1.6257)	0.6994 (1.6303)
" (문과기타=1, 기타=0)	-0.5274 (1.7464)	-0.5355 (1.7502)
" (공학계열=1, 기타=0)	-0.3925 (1.3882)	-0.3324 (1.3918)
" (자연계열=1, 기타=0)	-1.5150 (1.4222)	-1.5014 (1.4269)
" (사범계열=1, 기타=0)	-1.2488 (1.8116)	-1.2461 (1.8165)
대학지역년미(충청=1, 기타=0)	1.3606 (1.0796)	1.3542 (1.0831)
" (전라=1, 기타=0)	2.7495 ** (1.0796)	2.7933 ** (1.0825)
" (경상=1, 기타=0)	3.4296 *** (1.1104)	3.4231 *** (1.1142)
학년년미(4학년=1, 기타=0)	2.7997 *** (0.8797)	2.8301 *** (0.8839)
휴학년미(휴학=1, 기타=0)	3.3455 (1.8368)	3.3222 * (1.8489)
전공만족도년미(만족=1, 기타=0)	1.5415 (0.9366)	1.5512 * (0.9410)
전공전망년미(좋음=1, 나쁨=0)	0.6806 (0.8361)	0.7145 (0.8384)
전공수업참여년미(적극적임=1, 소극적임=0)	3.7433 *** (0.8993)	3.7406 *** (0.9035)
전공과제불년미(적극적임=1, 소극적임=0)	3.2217 *** (0.9139)	3.1751 *** (0.9195)
학교만족도년미(만족=1, 불만족=0)	-1.2206 (0.8866)	-1.2374 (0.8883)
부모동거년미(동거=1, 비동거=0)	-1.7845 ** (0.8276)	-1.7920 ** (0.8304)
공무원시험출원년미(있음=1, 없음=0)	-0.4582 (1.2329)	-0.5601 (1.2360)
Adj_R2	0.1076	0.1041
N	554	554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의미. ()안은 표준오차.

IV. 공무원시험과 노동시장 성과분석

1. 자료

공무원시험 준비가 인적자원개발에 어떤 효과를 갖는가를 추정하기 위하여 전국의 취업자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취업자 조사는 200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무직(표준직업 분류 대분류 기준 3개 직종: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 비중이 높은 6개 산업⁵⁾에 종사하는 30, 40대 사무직 종사자

를 대상으로 하였다.⁶⁾

<표 13> 취업자 모집단 및 표본수

(단위: 천명, 명, %)

산업	모집단 (천명)			표본수 (명)			추출률 (%)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제조업	730	608	122	163	148	15	0.0223	0.0244	0.012
건설업	230	191	39	52	47	5	0.0226	0.0248	0.0117
도소매업	466	310	156	105	84	21	0.0225	0.0271	0.0135
금융 및 보험업	296	214	83	66	62	4	0.0223	0.0288	0.0052
사업서비스업	499	403	96	111	85	26	0.0222	0.0211	0.0271
교육서비스업	75	42	33	17	12	5	0.0227	0.0278	0.0162
계	2,296	1,768	529	514	438	76	0.0224	0.0248	0.0143

자료: 통계청(2004).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추출방법은 매일경제신문사의 2004년판 『회사연감』을 활용하여 사업체를 층화추출방법(stratified sampling method)으로 추출한 후, 해당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자계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업종별 남녀 종사자 표본수 배분 방법은 모집단 수에 비례배정(proportional allocation)을 원칙으로 일부 조정하였다.⁷⁾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표본추출방식에 의해 선정된 최종 조사단위 업체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1차 전화접촉을 시도하여 조사대상인 30, 40대 사무직 종사자를 선별하였다. 이후 선별된 조사대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전달한 후 자계식으로 작성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토록 하였다. 자계식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확인하여 불충분한 부분은 전문조사원의 전화조사를 병행하여 보완함으로써 결손치를 최대한 방지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9월 20일~10월 24일이다.

5) 6개 산업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다.

6) 교육서비스 산업의 경우에 교육전문가와 준전문가로 분류되는 교원을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순수 사무직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7) 조정은 층별 최소 표본수(30명) 확보를 위해 이루어졌다.

2. 분석틀

공무원 공채시험이 인적자원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준비가 민간기업 취업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상당수의 공무원 수험생은 높은 공채시험 경쟁률과 응시연령제한으로 인하여 공직진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민간부문에 취업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간부문 취업자중 과거 공무원시험 준비경험을 갖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공무원시험의 인적자원개발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임금은 노동생산성의 함수이므로 양집단의 임금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생산성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시험 준비가 민간부문 진입 이후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의 상반되는 두 가지 요인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첫째, 공무원시험 준비과정에서 장기간의 학습과 훈련을 통해 수험생의 지식과 숙련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중도에 공무원시험을 포기하고 민간부문에 취업하더라도 생산성 제고효과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시험이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고 있지만, 수험생은 학습을 통해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인적자본(*general human capital*)을 축적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그것이 정부부문에서만 유용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별다른 가치를 갖지 못하는 기업특수적 인적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의 성격을 갖는가는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문제이다.

둘째,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크고, 민간부문 취업시 하향취업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산성을 오히려 낮출 가능성이 있다. 전공을 불문하고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무원시험 준비와 대학교육을 병행하기 어렵고 따라서 공무원 수험생은 전공공부를 소홀히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무원시험은 민간부문과 다르게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한 지필고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시험 준비가 민간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중도에 민간기업에 취업한 응시자는 민간기업에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이나 기술 등 업무능력이 미흡할 수 있고, 이것이 저생산성을 초래하여 저임금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시험을 포기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한 응시자의 직장불일치(*job mismatch*)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오랜 기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대졸 응시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하향취업이나, 전공불일치 취업으로 귀결될 가

능성이 높다. 매치이론(match theory)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장 일치의 질(quality of job match)이 생산성을 결정하는 중요요소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직장 일치의 질 저하는 저생산성에 따른 저임금의 원인이 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임금함수 추정을 통하여 공무원 시험준비의 인적자원개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ln Y = \alpha + \beta X + \gamma C + \delta N + \zeta E + \epsilon_i \quad (\text{식 3})$$

(식 3)에서 $\ln Y$ 는 로그연봉액(현재 연봉액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계산), X 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속성과 관련된 변수, C 는 직장의 속성과 관련된 변수, N 은 공무원 시험 응시회수, E 는 공무원시험 출원경험 더미변수(출원=1, 미출원=0)를 의미한다. N 및 더미변수 E 의 추정계수를 통하여 공무원시험 준비가 현재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공무원시험 응시회수를 포함한 이유는 개인별로 과거 공무원시험 준비의 강도가 상이할 것이고, 이에 따른 임금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리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임금함수 추정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14>와 같다. 개인의 특성변수는 성 더미, 연령, 교육년수, 결혼 더미, 근속년수, 현 거주지역 더미, 공무원시험 응시회수, 공무원시험 출원경험 더미 등이고, 직장의 속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산업 더미, 기업규모, 직장유형 더미, 고용형태 더미 등이다. 조사대상 민간부문 취업자중 공무원시험 출원경험이 있는 자는 전체의 24%로 나타나고 있다.

<표 14> 공무원시험 출원경험 유무에 따른 기술통계량

변수명	공무원 시험 출원경험 유		공무원 시험 출원경험 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봉 로그값	7.93	(0.41)	7.98	(0.40)
성더미(남자=1, 여자=0)	0.86	(0.36)	0.85	(0.35)
연령(세)	36.01	(5.01)	35.69	(5.07)
교육년수(년)	15.92	(1.34)	15.44	(1.64)
결혼더미(기혼=1, 미혼및기타=0)	0.63	(0.50)	0.71	(0.45)
근속년수	5.49	(3.62)	6.01	(4.72)
산업더미(제조업=1, 기타=0) 비교기준	0.25	(0.45)	0.34	(0.47)
" (건설업=1, 기타=0)	0.11	(0.32)	0.10	(0.30)
" (도소매업=1, 기타=0)	0.33	(0.48)	0.16	(0.37)
" (금융보험=1, 기타=0)	0.08	(0.28)	0.14	(0.35)
" (부동산임대업=1, 기타=0)	0.00	(0.00)	0.00	(0.00)
" (사업서비스업=1, 기타=0)	0.18	(0.40)	0.23	(0.42)
" (교육서비스업=1, 기타=0)	0.04	(0.19)	0.03	(0.17)
기업규모(명)	138.40	(256.87)	202.81	(288.87)
직장유형더미(민간기업=1, 기타=0) 비교기준	0.89	(0.32)	0.84	(0.37)
" (공기업=1, 기타=0)	0.04	(0.19)	0.03	(0.17)
" (외국인회사=1, 기타=0)	0.04	(0.20)	0.10	(0.30)
" (기타=1, 민간기업·공기업·외국인회사=0)	0.03	(0.17)	0.03	(0.18)
고용형태더미(정규직=1, 비정규직=0)	0.98	(0.15)	0.90	(0.29)
현거주지역더미(서울·인천·경기=1, 기타=0)비교기준	0.60	(0.50)	0.74	(0.44)
" (충청도=1, 기타=0)	0.04	(0.19)	0.06	(0.23)
" (전라도=1, 기타=0)	0.06	(0.25)	0.04	(0.20)
" (경상도=1, 기타=0)	0.28	(0.46)	0.14	(0.35)
" (강원·제주=1, 기타=0)	0.02	(0.14)	0.02	(0.13)
공무원시험에 응시회수(회)	1.95	(1.52)	0.00	(0.00)
공무원시험 출원경험 더미(있음=1, 없음=0)	0.24	(0.00)	0.76	(0.00)

3. 추정결과

총 4개의 모형을 추정하였는데, 취업자 집단에 따라 <모형 1>(취업자 전체), <모형 2>(30세~34세), <모형 3>(35세~39세), <모형 4>(40세~49세)으로 나누었다. 이처럼 별도의 모형을 추정한 이유는 공무원시험 응시경험이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직업세계에서의 경력, 근속 등을 통한 숙련형성과정을 통해 그 영향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취업자 집단별 임금함수 추정식은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표 15>를 중심으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전체의 적합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성, 연령, 학력, 근속, 이직회수, 기업규모, 공무원시험 응시회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산업더미, 현 거주지역 더미, 공무원시험 출원경험 등은 일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부분의 변수들이 표준적인 임금함수의 추정결과에서 나타나는 부호와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시험 응시회수 및 출원경험 더미변수의 임금효과만을 살펴본다.

<표 15> 공무원시험 응시경험의 임금효과 추정결과

	모형 1(전체)	모형 2 (30세~34세)	모형 3 (35세~39세)	모형 4 (40세~49세)
상수항	6.1259 ***	6.1203 ***	5.7925 ***	5.2226 ***
성더미(남성=1)	0.2200 ***	0.0882	0.4901 ***	0.4777 ***
연령	0.0166 ***	0.0252	0.0159	0.0244 **
교육년수	0.0632 ***	0.0526 ***	0.0792 ***	0.0701 ***
결혼더미(기혼=1)	0.0445	0.0443	-0.0171	0.1728
근속년수	0.0220 ***	0.0287 ***	-0.0005	0.0123 **
산업더미(건설업=1)	-0.0800	-0.0929	-0.0161	-0.0486
(소매업=1)	-0.0741 *	-0.0639	0.0111	-0.184 **
(금융보험업=1)	0.1820 ***	0.2075 ***	0.2154 **	0.1389
(사업서비스=1)	0.0349	-0.0312	0.1544 *	0.2147 **
(교육서비스=1)	-0.1205	0.0092	0.0133	-0.1787
기업규모(명)	0.0002 ***	0.0002 ***	0.0002 *	0.0002
직장유형더미(공기업=1)	-0.1171	-0.1496 *	0.0597	-0.1582
(외국계=1)	0.1202 **	0.1054	0.1778	0.0759
(기타=1)	-0.0313	-0.3386	-0.0942	0.1411
고용형태더미(정규직=1)	0.0220	-0.0796	0.0089	0.1081
지역더미(충청도=1)	-0.1694 ***	0.1621	-0.3197 ***	0.0528
(전라도=1)	-0.1685 **	-0.0745	-0.0999	-0.3461 ***
(경상도=1)	-0.2098 ***	-0.2693 ***	-0.0832	-0.1032
(강원제주=1)	-0.1222	-0.1592	0.0395	-0.7435
응시횟수	-0.0480 **	-0.0315	-0.0245	-0.0698 **
출원경험더미(출원=1,비출원=0)	0.0909 *	0.1632 **	-0.1907 *	0.1246
Adj_R2	0.4320	0.3791	0.3922	0.5585
N	511	237	144	130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의미.

우선 공무원시험 응시회수의 증가는 임금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40대 사무직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형 1>에 따를 경우 시험 응시회수가 1회 증가할 경우 임금은 4.8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추정모형을 살펴보면 30대 전반에서는 응시회수 1회 증가시 3.15%의 임금감소 효과가 있으며, 30대 후반에서는 2.45%, 그리고 40대에서는 6.98%의 임금감소 효과가 각각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시험 출원경험 더미변수는 30, 40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9.09%의 임금상승 효과가 존재하였다. 응시회수와 출원경험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를 결합하여 보면, 30, 40대 전체의 경우 응시회수가 1.89회 이상일 경우에는 공무원시험 응시가 현재임금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무원시험 준비기간 5.8개월당 1회 공무원시험에 응시⁸⁾하는 것으로 본다면 10.98개월(=1.89회×5.8개월) 이상 시험준비를 하는 것은 현재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공무원시험 준비가 장기화될수록 이후 민간부문 취업시 직업일치의 질을 저하시키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숙련형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공무원시험 준비는 대학재학 및 졸업생에게 지식과 숙련형성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개발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상당기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 불이익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공직을 포기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시험준비 기간이 긴 응시자일수록 불리한 현재임금에 직면한다는 사실은 향후 공무원 공채시험 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공무원시험 준비를 통해 응시자가 전반적인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취업과의 연계성을 보다 폭넓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8) 9급 1·2차 시험에 합격하고 3차 면접시험에 응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평균 공무원시험 준비기간 26.8개월, 평균 응시회수는 4.6회라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계산한 수치이다.

V.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본 연구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현행 공무원 공채제도가 대학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대학재학생의 공무원시험 열풍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학교육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는 모범고용주(model employer)로서 공직내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채용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 재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시험 응시 비율은 17.8%로 높게 나타나 공무원시험이 대학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공별로는 법학/행정/정치/외교학과 의 응시비율이 높았으며, 문과와 이과의 구분없이 대부분의 전공에서 10%이상의 학생이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대생의 응시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지방대학의 취업난이 공무원시험 열풍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공무원 시험응시 결정요인에 관한 로짓분석 결과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직이거나, 가족 중 공무원이 있을 경우 응시성향이 높아 가족배경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무원 시험 응시여부에 따른 학점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논문에서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시험 공부와 전공공부의 병행가능성, 공무원시험의 전공공부에 대한 영향 등 정성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⁹⁾

셋째, 민간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공무원시험 응시회수가 1.89회 이상 일 경우에는 공무원시험 응시가 현재임금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9)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호영 외(2005: 53~89)를 참조하기 바란다.

시험 준비기간이 약 11개월 이상일 경우 공무원시험공부는 민간기업에서 필요한 지식과 숙련형성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시험 준비가 장기화될수록 이후 민간부문 취업시 직업일치의 질을 저하시키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숙련형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공무원시험 준비는 보편적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인적자원개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민간기업에서 그다지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채용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공무원 채용제도의 변화를 통해 대학공부에만 전념하더라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 5급, 7급, 9급을 막론하고 대학재학생 이상 학력자가 응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무원시험 응시인원이 3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무시할 수 없을 규모로 확대된 현실 속에서 대학교육과 유리되어 공무원 채용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학의 전공과 학점을 선발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력, 전공, 학점 등을 기준으로 한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제한, 가점부여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중 응시자격 제한은 현재 우리나라 채용관행과 부조화되는 면이 있으므로 가점부여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직급별, 직렬별로 학력, 전공, 학점 등에 대한 가점부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공무원 채용제도의 개편을 통해 대학의 인적자원개발기능과 선별기능(screening function)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교육제도 운영의 주체이자 고용주인 정부가 당연히 수용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대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직접 최종평가과정에 선발하는 별개의 경로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⁰⁾ 현재 고려되고 있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

10)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2005년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소정의 어학능력을 갖춘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PSAT 및 구술시험을 거쳐 선발하여 3년동안 견습근무하게 한 후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한 자를 일반직 6급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5급 공개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을 지방인재로 선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각각 6급, 5급 신규채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을 7급, 9급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선발경로에 대해서는 대학간 교육의 질 및 학생의 학력차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대학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학교에 대하여 성적 우수자의 공직진입 기회를 확대한다면 지방대학의 황폐화를 막고,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무원시험을 단순히 많은 지원자중에서 합격자를 선별하는 소극적 도구로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과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5급, 7급, 9급을 합해 한해 30만명에 육박하는 공무원시험 응시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좋은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급 고시에서 영어시험을 폐지하고 회화와 실용영어능력을 주로 측정할 수 있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을 도입한 것은 수험준비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문 취업시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7급 및 9급 시험에도 확대, 도입할 경우 공무원시험이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직접근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채용제도의 간소화가 요구된다. 채용제도 간소화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행정의 무능화를 초래하는 것이며, 행정의 전문화·효율화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채용제도의 간소화로 인하여 무자격자가 공직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유능한 인재의 공직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직지원자를 대상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일련의 평가과정을 거쳐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채용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5급 공채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것을 조속히 하위직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과목중심에서 탈피하여,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의 영역중심으로 평가방식을 바꾸는 것은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박사학위소지자 등 고급두뇌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특별채용의 확대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하는 제도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2004) 참조.

참 고 문 헌

- 매일경제신문사(2004). 『회사연감』□매일경제신문사.
- 안룡식(1981). 「대학생의 공직 및 고시관 조사: 연세대학교의 경우를 중심으로」, 『연세 행정논총』, □제7권, 149~197쪽.
- 오호영(2004). 「우리 나라 공무원 보수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실증분석」, 『경제논집』, □제42권 제4호, 353~375쪽.
- 오호영 외(2005). 『공무원 채용제도가 노동시장과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우현·임찬영(2000). 「지난 20 년간 공무원 처우에 있어서 관민대등 정도의 비교와 정책과제」, 『노동경제논집』□제23권 제1호, 65~80쪽.
- 중앙인사위원회(2004). 『공무원 인사개혁백서』□중앙인사위원회.
- 하태권(2004).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평가 및 향후과제』□한국행정연구원.
- Berman Evan M. et al.(2001).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Public Service*, Sage Publication, Inc.
- Coleman, J. S. et al.(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OECD(1997).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OECD Proceedings.
-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http://www.kedi.re.kr>.
-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공공데이터베이스. <http://www1.kipa.re.kr>.

abstract

Civil Service Examinations and College Education

Ho-Young Oh

This research examines the effect of civil service examinations on college education with respect to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survey results revealed that 17.8 percent of college students was preparing for various kinds of civil service examinations, and college students in regional areas were twice more likely to become civil servants than those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areas. College students showed high propensity to apply for a civil service examination if their father's occupation was managerial or a member of their families is a civil servant. Whether or not a student is preparing for a civil service examination does not seem to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his/her academic performance.

To analyze the effect of civil service examinations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is study estimated the wage function, which included the dummy variable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preparation among private sector workers. According to the estimation, the wage effect is negative for those who has prepared for a civil service examination for longer than 11 months. The result signifies that preparing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s does not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skills and knowledge needed in private sector. With some 300 thousand youths preparing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with consideration for attracting competent manpower to the public sector, and the spin-off effects on highe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Keyword: Civil service examination, College educ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gional college